‘골짜기’에서 건져 올린 4강

U-20 월드컵 한국 4위로 마무리
3·4위전 이스라엘에 1-3 패배
무관심·부상 속 기대 이상 성적

무관심과 부상 등 갖은 악재 속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도전을 시작한 김은중호가 기대를 훌쩍 넘어선 4위의 성적을 내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김은중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이스라엘에 1-3으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비록 입상에 실패했지만, 준우승한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4강의 성적을 낸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 김은중호를 향한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

김은중호에는 축구 팬들이 알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해외파 김용학(포르티모넨스), 유일하게 K리그에서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잡던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정도를 제외하면 ‘무명’이나 마찬가지였다.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까지 받은 김은중호는 좌절하지 않았다. 무관심을 양분 삼아 더 단단한 팀으로 변화해나갔다.

김은중 감독은 나이지리아와 8강전 뒤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 우리 코칭스태프들이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해줬다”며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최고의 잠재력을 꺼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도 김은중호를 괴롭혔다.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미드필더 이현주와 올 초 U-20 아시안컵에서 활약한 공격수 성진영(고려대)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배준호도 근육 부상을 당해 조별리그에서 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우려 속에 대회를 시작한 김은중호는 승승장구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2-1로 물리치는 ‘이변’을 일으킨 끝에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16강전에서 에콰도르에 3-2,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와 연장전 끝에 1-0으로 승리하며 준결승까지 내달렸다.

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는 아깝게 1-2로 패했다.

김은중 감독의 단단한 실리축구가 빛났다.

상시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만드는 대표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줬다.

주 득점 루트인 세트피스와 역습의 완성도도 높았다. 특히 김은중호는 이번 대회에서 총 10골을 넣었는데, 그중 6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었다.

페널티킥 2골을 제외한 세트피스 4골 모두 킥이 정확한 이승원(강원)의 코너킥·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헤더로 뽑아냈다.

이승원은 3골 4도움을 올려 2019년의 이강인(2골 4도움·마요르카)을 넘어서는 맹활약을 펼쳤고, 3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브론즈볼까지 받았다.

예상 밖 선전을 펼친 김은중호가 ‘체력 문제’에 발목이 잡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은중호 21명의 ‘리틀 태극전사’들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값진 경험을 했다.

나아가 A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진짜 태극전사’가 되려면 프로 무대에 자리 잡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해내는 건 각자의 몫이다. /연합뉴스

이승원 3골 4도움 맹활약 … ‘브론즈볼’ 수상

K리그1 데뷔전 못 치른 4부리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맹활약한 김은중호의 ‘캡틴’ 이승원(강원)이 대회 최우수선수(MVP) 3위 격인 ‘브론즈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원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U-20 월드컵 3·4위전과 결승전이 모두 끝난 뒤 진행된 대회 시상식에서 아디다스 브론즈볼 수상자로 호명됐다.

브론즈볼은 대회 MVP인 골든볼, 2위에 해당하는 실버볼에 이어 이번 대회 참가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친 것으로 인정받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 남자 축구 선수가 FIFA 성인 및 연령별 월드컵 대회에서 개인상을 받은 건 이승원이 세 번째다. 2002 한일월드컵 때 홍명보 현 울산 현대 감독이 4강 신화에 앞장서며 브론즈볼을 받았고,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 때 이강인(마요르카)이 한국 남자 축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골든볼’ 수상자로 이름을 남겼다.

이번 대회 김은중호의 ‘캡틴’을 맡은 이승원은 총 3골 4도움을 올리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아 4강 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격 포인트 7개는 4년 전 U-20 월드컵 때 이강인이 남긴 6개(2골 4도움)를 넘어서는 한국 선수의 FIFA 주관 남자 대회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이다.

지난해 12월 강원FC에 입단해 K4리그(4부)에서만 뛰었을 뿐 아직 K리그1 데뷔전을 치르지는 못한 이승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 연령대 최고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시상식에서 이승원은 현장을 찾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으로부터 브론즈볼 트로피를 받았다.

골든볼은 이번 대회 득점왕(7골)이기도 한 이탈리아의 체사레 카사데이가 차지했고, 실버볼은 우루과이의 알란 마투로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이제 A매치다…페루전 앞두고 몸 푸는 손흥민 손흥민, 황의조 등 축구대표팀이 12일 오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페루와 친선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오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시상식에서 이승원이 아디다스 브론즈볼을 수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순위 싸움…양현종·최형우 ‘리더’ 역할 주목

키움 원정 이어 NC와 안방 대결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6위에서 고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13일부터 키움 히어로즈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는 답답한 한 주를 보냈다. SSG 랜더스를 상대한 홈 주중 3연전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했고, 주말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위닝시리즈는 기록했지만 11일 경기에서 ‘고졸루키’ 윤영철이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도 패전 투수가 되는 등 2승 4패에 그쳤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지 못했다.

SSG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빈 틈은 많았다. 상대 마무리 서진용이 2경기에서 6사사구를 내주는 등 흔들리면서 9회말 기회들이 있었고, 상대 선발 박종훈이 4이닝 동안 7개의 볼넷을 남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벤치의 ‘리더’ 김종국 감독의 세밀한 운영과 전략이 부족했고, 결국 세 경기 모두 1점 차 패배로 끝났다.

특히 프로 첫 4일턴을 소화한 윤영철은 6일 경기에서 1회 위기를 넘고 7이닝 2실점이라는 개인 최다 이닝 기록을 쓰고도 1-2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11일 두산전도 2-3으로 끝나면서 윤영철은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도 2패만 기록했다.

최원준이 ‘예비역’으로 돌아오는만큼 김종국 감독은 경쟁 구도를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1점’을 더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매서움이 떨어지는 두 외국인 선수와 제구 난조의 이의리 그리고 마운드의 ‘리더’ 양현종이 흔들리면서 고졸 신인 선수에게 많은 부담감이 주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양현종은 이번 주 KIA 마운드의 키를 쥐고 있다.

지난 2일 사직 원정에서 2이닝 9실점으로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던 양현종은 7일 SSG전에서도 4.1이닝 7실점으로 흔들렸다. 이날 소크라테스가 연타석 홈런을 날려주는 등 3회까지 타자들이 5점을 만들어줬지만 양현종의 난조로 경기는 8-9 패배로 끝났다.

베테랑 양현종이 두 경기 연속 크게 무너졌지만 김종국 감독은 ‘믿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상 로테이션으로 13일 양현종이 키움과의 첫 경기에서 후라도와 맞대결에 나선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한 주 마지막 경기도 양현종이 책임지게 된다.

양현종이 마운드 ‘리더’로서 앞선 두 경기 부진을 털어내고 사실상 에이스와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필요한 신인 윤영철과 2년차 최지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지난 주 KIA에서 가장 뜨거웠던 타자는 소크라테스였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주 9개의 안타를 더하는 등 6월 0.438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주 홈런존을 강타한 ‘한방’ 등 2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잠실구장에서는 외야 펜스 상단을 때리는 홈런성 2루타도 기록했다.

소크라테스의 반등으로 중심타선에서 책임이 막중했던 최형우의 방망이에도 힘이 실렸다.

나성범의 부상이 길어지면서 최형우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강렬한 활약을 하면서 팀 타선을 이끈 최형우는 이번 주 KBO 최다 타점 기록에 도전한다.

현재 최다 기록은 이승엽 두산 감독의 1498타점. 최형우는 1493타점을 채우면서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꾸준함의 대명사로 많은 기록들을 새로 쓰면서도 “하다 보니 이룬 기록이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최형우지만 ‘최다타점’에는 욕심을 보여왔다.

최형우가 타점 행진으로 팀에 승리를 안겨주고 타점 부문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